

“이주노동자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의 불교활동가 선정된 간헬라산스시리 스님

“아직은 부족한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 한국국적의 스리랑카 스님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간헬라산스시리 스님(꿈을이루는사람들 마하이주노동자센터장·사진)이 올해의 불교활동가로 선정됐다.

설범연구원(원장 동출)은 올해의 불교활동가로 간헬라산스시리 스님과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한주영(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홍지연(대불련 지도위원장)씨를 선정하고 지원금 200만원을 각각 전달한다.

간헬라산스시리 스님은 2003년 스리랑카에서 한국 스님을 만나 한국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한국에서 2개월 넘게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노동자들을 만나고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과주와 안산에서 봉사를 하던 스님은 2005년 4월 진오 스님(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이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상담센터인 구미마하이주민센터로 왔다.

이곳에서 스님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아플 때 병원에 동반해서 병원 통역하는 일부러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처리와 관련해 경찰·법원·노동부의 통역업무는 모두 스님의 일이었다.

간헬라산스시리 스님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0월 구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또한 스님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운데 2009년부터 이간으로 구미1대학에 입학해 아동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2011



년 졸업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간헬라산스시리 스님은 2009년부터 귀화신청을 준비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 현재는 한국인의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면서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해 법회를 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님은 “한국에 와서 신앙을 쌓기 힘든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해 몸과 인정을 지원하고자 마하이주노동자센터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출 스님은 2001년부터 기금을 출연해 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해왔다. 간헬라산스시리 스님과 함께 올해의 불교활동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김영란 소장은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해온 경력이, 한주영 사무처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실무 전반을 수행해온 경력이, 홍지연 지도위원장은 대학생 포교와 불교교육에 힘써온 공로가 인정돼 이번 상을 받게 된다. 전달식은 12월 6일 오후 4시 템플스테이 3층 문수실에서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불교계 사회적기업 프로보노단 출범

불교계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한 프로보노단이 출범했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 사회적기업전문(특화)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은 11월 28일 전법회관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발족시키고 위촉식을 병행했다.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돕는 일을 말한다. 이번에 발족한 프로보노단에는 이상근 공인회계사, 조희원 변리사를 비롯해 사회적기업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경영컨설턴트, 중소기업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업무와 경영활동에 전문역할을 하게 된다. 이나은 기자

‘치마불교’ 보다 상업주의가 비판돼야

불교여성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토론회서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장

“한국 여성불교를 ‘치마불교’라 칭하는 것은 여성 폄하 발언입니다.”

‘치마불교’는 여성신도가 대부분인 한국 사찰에서 기복신앙 위주의 문화를 폄하는 말로, 여성들의 신행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는 여성의 신행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왜 나타나는데에 대해 주목하고 여성들의 신행 현실을 재평가 하고자 12월 3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페미니즘 시대에 여성 신행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치마는 없다: 젠더화된 기복신앙과 한국 불교 가족주의 비판’ ▷조계종 교수이사리 명법 스님이 ‘여성불교의 관점에서 본 기복불교’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이 ‘치마불교,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로 주제발표 했다.

조은수 소장은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여성 불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여성들의 신행 행태를 부정

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성의 종교 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와 한국사회와 불교계의 보수성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부정적 평가는 교단 내에서 여성의 활동을 주변화시키고, 여성 인력의 유입을 차단해 교단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기복신앙 행태를 기반으로

한국종교권력 비정상적 거대해져

여성 신앙문제 ‘가족주의’가 발달

기복신앙 여성 주제로 문제 다뤄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불교의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은 한국 대부분의 종교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독교가 기복을 사며니즘, 전통종교 등으로 타자화시킨 것에 비해 불교는 이를

‘치마’로 상징되는 여성적인 것으로 표현해 거리두었다”며 “한국불교의 기복 신앙론은 젠더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징은 한국 불교계의 여성성으로부터의 탈피, 자기만의 정체성규명, 합리 이성적인 심리태도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미 연구원은 “사회적으로 한국종교의 기복신앙이 지탄받는 핵심은 따로 있다”며 “기복신앙형태를 기반으로 한국종교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졌다”고 지적했다. 기복신앙이 치마로 상징되는 비합리적인 저급한 종교형태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보다, 그것이 사회의 탈가족주의, 새로운 공익적 지역공동체 전망을 가로막는 하나의 권력화 된 시스템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조승미 연구원은 “기복신앙 비판의 진짜 주제는 여성의 신앙문제, 종교부연의 정체성도 아닌,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극복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여성은 한 집안의 종교 대리인 역할을 이행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종교 갈등은 “한국불교의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은 한국 대부분의 종교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독교가 기복을 사며니즘, 전통종교 등으로 타자화시킨 것에 비해 불교는 이를

불자들이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신행수기문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연구원은 기복신앙문제가 극복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사찰경제구조의 사유화, 폐쇄주의, 권위주의적 운영을 제기했다.

조계종 교수이사리 명법 스님은 “그동안 기복불교 논쟁은 교리적 판단에서만 의뢰져 주체의 문제가 빠져있었다”며 “기복불교 논쟁은 서양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타자화한 것과 비슷하다. 이성적이고 근대적인 남성이 비이성적·전근대적인 여성의 종교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복불교 담론은 근대적 남성의 종교성을 주체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여성의 신행생활을 타자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법 스님은 “기복신앙은 본래 복을 단순히 주고받는 교환적 의미가 아닌 호혜적 관계였다”며 “단순히 여성들의 기복신앙 문화가 비판될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을 토대로 상업주의화 되는 불교계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조은수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제한과 편견없는 양성 평등한 여성 신행 문화가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84@naver.com



아름다운동행이 11월 29일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모기장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말라리아 퇴치 동참

UN재단에 모기장 후원금 전달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UN재단에 모기장 마련을 위한 기금 5000만원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1월 29일 전달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말라리아로 100여 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 중 90% 이상이 5세 미만의 어린이다. 말라리아는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해 살충 처리된 모기장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UN재단은 Nets Go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아프리카에 전달할 살충 모기장을 구입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사용받기까지 교육할 수 있는 금액이다. UN 재단은 23일 대검찰청과도 지원 협약을 맺는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승 스님은 “1만원의 모기장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오른쪽)이 자승 스님에게 호국연무사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해인사, 군법당 건립 기금 2000만원 전달

호국연무사 불사금 65% 모연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1월 29일 논산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건립 기금으로 2000만원과 참기름 100병을 총무원에 기증했다. 자승 스님은 “대장경전년축제와 대중사 품서식을 치르는 와중에 군 법당 건립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관심 덕분에 대장경전년축제문화축전이 여법하게 회향하게 돼 감사하다

는 인사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늦게 군법당 건립불사에 동참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현재 군법당 건립불사는 70%의 공정이 진행 중으로 불사금은 65%정도 모연됐다. 늦더라도 마음을 내셔서 동참해 주신 것이 중요하고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앞서 해인사는 11월 28일 해인사 선원당에서 연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과 쌀 100포(10kg)를 합천군에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곱광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활력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뚝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완저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